

3. 리비도 이론

정의 : 리비도 개념은 성 흥분 영역에서 발생하는 과정과 변형의 척도로 쓰일 수 있는 **양적으로 가변적인 힘**이다. 게다가 우리는 정신과정 전반에 깔려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에너지와 구분하고 거기에 질적인qualitative 특성도 부여했다. (번역본에서는 오역) 이처럼 리비도적 에너지와 심적 에너지를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성 과정이 특별한 화학 작용에 의한 영양섭취 과정과 구분된다는 가정을 표명한다. (성 충동과 자기보존 충동의 차이) 성 흥분은 신체 모든 부분에서 생겨나며, 우리는 리비도의 양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내고, 그것의 정신적 표현에 **자아-리비도ego-libido**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아-리비도는 성 대상에 정신을 집중하도록 이용될 때, 즉 그것이 **대상-리비도**가 될 때만 분석 연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비도가 대상에 집중하여 고착되거나,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대상으로 옮겨지며, 그러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만족에 이르는, 즉 리비도가 소멸에 이르는 성 행동을 이끈다고 인식할 수 있다. 리비도의 분배와 전치

리비도가 대상에서 물러났을 때 마침내 자아로 이끌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자아-리비도가 된다. 그러니까 리비도가 자아를 대상으로 투자된다는 얘기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리비도는 그전까지 자아와 대립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대상 리비도와 대조적으로 자아 리비도를 자기애적 리비도라고 한다. 자아 리비도는 대상 리비도가 밖으로 나오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거대한 저장소처럼 보인다. (훗날 이 저장소 역할은 id가 떠맡는 것으로 설명된다) 자아의 자기애적 리비도 집중은 초기 유년 시절 실현된 원래의 상태이다. 자아 리비도의 변화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설명하는 문제일 때 주된 역할을 할 것이다. (정신병은 리비도가 대상에서 완전히 철회되고 자아에게 집중, 고착된 상태를 말함) 정신분석은 당분간 우리에게 대상 리비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만 확실한 정보를 줄 뿐, 자아 리비도와 자아에서 작용하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 사이의 직접적 구분은 할 수 없다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융의 예를 따라 리비도 개념 자체를 본능적 힘과 동일시함으로써 그 의미를 퇴색시키면 지금껏 정신분석 관찰에서 얻은 것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4.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생기는 것은 사춘기 이후다. 물론 남성적 소인과 여성적 소인들은 아동기부터 이미 쉽게 인식될 수 있다. 성욕의 억압(수치심, 혐오감)의 발달은 여아들의 경우에 보다 일찍, 그리고 남아들보다 저항을 덜 받고 생겨난다. 또 성욕의 부분 충동이 나타나더라도 수동적 형태를 선호한다. 그러나 유아기에 보이는 자가-성애적 행동은 양성 모두 같다. 우리는 여아들의 성욕이 완전히 남성적 특성을 띠다고 규정할 수 있다. 리비도는 언제나 남성적 성질을 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각주 참조) 리비도가 남성적이라고 기술되었을 때, 그 말은 능동적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충동은 결보기에는 수동적 목적을 가졌더라도 언제나 능동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수차례 설명했던 부분. drive is active, 가령 노출증의 경우도 내가 스스로 남에게 보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오줌싸기)

남성과 여성들의 중심적 성감대

여아의 주된 성감대는 클리토리스이고, 따라서 남성 성기의 귀두와 유사하다. 여아들의 수음에 관한 한, 주로 이것과 관계한 것이지 나중에 발달하는 외성기와 관계된 것이 아니다. 여아들의 경우 성적 흥분의 자발적 해소는 클리토리스의 경련으로 표현된다. 남아에게는 리비도에 급속히 접근해가는 사춘기가 여아에게는 억압의 새로운 발현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 때 영향을 받는 것은 클리토리스의 성욕이다. 여자들에게서 사춘기의 억압으로 인해 생겨나는 성욕에 대한 억제의 강화는 남자들의 경우 리비도에 대한 자극으로 향하고, 그 능동성을 증가시킨다. 리비도의 고조와 더불어 **몸을 사리고 성욕을 부정하는 여자에 대해서만 최고로 나타나는 성적 과대평가**도 증가된다. 그러나 클리토리스 자체가 흥분되면 흥분이 인접한 성적인 부분들로 전달된다. 이것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젊은 여성은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 만약 클리토리스 부위가 그 흥분 가능성을 포기하려고 들지 않으면 이 무감각 상태가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자극에 대한 성감의 수용 가능성이 클리토리스에서 질구로 충분히 전달되었다면 그것은 나중의 성 목적을 위해 새로운 주도적 성감대를 채택했다는 의미다. 여자들이 사춘기에 생기는 억압의 발현, 즉 아동기의 남성다움을 옆으로 제쳐놓는 변화와 더불어 이런 식으로 주도적 성감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여자가 신경증, 특히 히스테리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주된 요인이다. 그러므로 이 결정 요인들은 여성다움의 본질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5. 대상의 발견

성적 만족의 시작이 아직 양분 섭취와 관련되어 있었을 때 성 충동은 아기의 몸 외부에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형태로 성 대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본능은 나중에 대상을 잃게 되는데, 어쩌면 아이가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 생각을 형성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시기일 것이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이 사랑과 관련된 모든 관계의 전형**이 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른 유아기의 성 대상

잠복기 동안 유아들은 무력한 상태에 있는 자기들을 도와주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에 대해 사랑을 느끼는데, 이 사랑은 자식으로서 젖을 먹여주는 어머니에 대한 관계의 전형이자 연장이 된다. 이러한 애정과 존경을 성적인 사랑과 동일시하려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픈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를 자기 자신의 성생활에서 도출된 감정들을 가지고 대한다. 아이를 쓰다듬고 입을 맞추고 열러 주면서 아주 분명하게 아이를 완전한 성 대상의 대체물로 다룬다. 그녀는 이것을 대개는 순수한 사랑으로 여긴다. 애정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어느 날엔가는 성기 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는 단지 아이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임무를 완수하고 있을 뿐이다.

유아기의 불안

아동들은 의존이 성적 사랑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아이들의 불안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느끼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아이들은 어둠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심한 아이들은 대개 과도한 성 충동이 있거나 너무 많은 애무를 받아 성 충동이 조속하게 발달했다. 이 점에서 아이는 리비도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그것을 불안으로 돌림으로써 성인처럼 행동한다. 다른 한편 신경증 환자인 성인도 불안하면

아이처럼 행동한다. **신경증 환자의 불안은 리비도에서 생겨나며 불안은 리비도가 변해서 생긴 것이다.** (1920년 추가된 각주에서 첨부)

근친상간에 대한 장벽

부모들의 애정은 아이가 성숙기에 이르렀을 때 성 대상 선택에서 아이를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아이에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줄어든 리비도라고 할 수 있는 애정으로 사랑해왔던 바로 그 사람을 성 대상으로 삼는 일이다. 그러나 성적 성숙이 미루어짐으로써 아이는 성욕에 대한 다른 제한들과 함께 근친상간을 막는 장벽을 쌓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혈족을 대상 선택에서 제외시키는 도덕적 계율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본다. **이 장벽을 존중하는 일은 문화적 요구다. 사회는 청소년기에 있는 소년들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가정과의 관계에서 느슨하게 풀어놓을 수단을 찾는다.** (의무교육도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처음 대상 선택이 완성되는 것은 관념의 세계[환상]에서다. 이 경향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나이에 성 충동이 빈번히 부모에게로 향한다는 것인데, 이는 대체로 반대되는 성에 끌리기 때문에 구별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신경증의 핵) 이 명백한 근친상간의 환상이 극복되고 부인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의미심장한 사춘기의 심리적 성취가 완성된다. 부모의 권위에서 이탈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신·구세대 사이의 대립을 가능케 하는 과정으로서 **문명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 사춘기가 지난 뒤에도 어린애다운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은 여자들인데, 이런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성적으로 무감각한 차가운 아내가 된다. 성적인 사랑과 겉으로 보기에 성적이지 않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모두 같은 근원, 즉 리비도의 유아기적 집착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신경증 환자들의 경우 대상을 찾으려는 성심리 행동의 대부분이 성욕을 부정한 결과로** 무의식 상태에 남아있다. 사랑받으려는 요구가 지나치게 강하면서도 실제적 성생활에서 요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큰 여성들은 삶에서 성과 무관한 사랑이라는 환상을 품고, 부모나 형제자매들에 대한 유아기의 애정을 고수함으로써 자책을 앓고도 표현할 수 있는 애정 뒤에 리비도를 숨긴다. (루 살로메의 경우)

유아기 대상 선택의 여파

이러한 근친상간적 고착을 피한 사람이라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젊은 남자가 원숙한 여인과 젊은 여자가 권위 있는 나이든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일은 흔하다. 어떠한 대상선택도 이러한 전형에 근거를 둔다. 특히 남자는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대신할 수 있는 여자를 찾는다. 따라서 생존한 어머니는 자신과 닮은 모습을 한 여자를 불쾌하게 여기고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다. (고부갈등은 필연이다?)

성 대상 도착[동성애]의 예방

이성으로 향하는 대상 선택은 어느 정도의 실수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드수아는 사춘기의 남자·여자들이 동성의 사람들과 감상적 우정을 맺는다는 사실을 옳게 지적한다. 성 대상 도착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성의 성적 특징들이 행사하는 매력이다. 그러나 이 요인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도움이 되는 다른 요인은 사회의 권위 있는 금지다. **아버지에게 성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한 경험 혹은 그와의 경쟁적 관계가 자기와 같은 성에 끌리지 않도록 편향시킨다.** 남자들에 의한 소년 교육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날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남자 하인들을 고용한다는 사실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요약

1. 신경증은 성도착의 음화다.
2. 성 충동은 여러 요인들이 합쳐진 것이며, 성도착에서는 그 충동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로 나뉘어 드러난다. 성인의 성 충동은 유아기의 여러 충동들을 단일하게 결합시킨, 즉 단일한 목적을 지닌 충동에서 생겨난다는 가정 하에 하나로 연결되었다. 충동의 본류가 **억압**에 의해 막히면 이차적으로 지류를 채운다는 비유로 신경증 환자들에게 성도착이 우세하게 나타남을 설명했다.
3. 아이들은 성 충동의 배아를 가지고 태어나며, 양분을 섭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성적 만족감을 즐기고 손가락을 빨면서 끊임없이 그 경험을 **반복**하려고 한다.
4. 아이들의 성 행동은 2-5세 사이 짧은 개화기를 거친 뒤 이른바 잠복기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성적 흥분의 생성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성 이외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이는 에너지를 비축한다. 이렇게 볼 때 성 충동을 특정 노선으로 존속시키도록 예정된 힘들은 성 충동을 희생시킨 대가로 형성된다.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에너지도 결국 리비도 에너지!)
5. 아이들의 성 흥분은 여러 요인에서 생겨난다. 여러 원인에서 생겨나는 흥분은 아직 결합되지 않고 제각기 개별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은 단지 어떤 특정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 성 충동은 통합되지 않고, 대상이 없는, 즉 **자가-성애적**임을 알 수 있다.
6. 아이들의 성적인 생활에서 성 충동적 요소들의 조직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나타난다. 구강 에로티시즘 → 사디즘과 항문 에로티시즘 → **남근기**(1924년 추가) → 성기기
유아 성욕의 개화기에 이미 대상선택이 시작되며, 그 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정신적 활동이 수반된다.
7. 발달과정이 잠복기에 의해 중단된다는 사실은 특별한 관심을 끈다. 이는 **문명**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인간의 태도에 필요한 조건들 중 하나지만 또한 **신경증적 경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명[문화]은 억압에 의해 가능하다)
8. 사춘기가 되면서 겪는 성적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정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하나는 성적 흥분의 다른 모든 근원들이 생식기 부위에 종속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우리는 성욕이 남성적인 것이냐 여성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것을 고려해야 했고, 여자아이가 여자로 바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억압 단계, 즉 유아기의 남성적 특징을 버리고 주된 성기 부위를 바꾸도록 준비시켜주는 단계가 필요하다. 대상선택에 관해서는 부모나 자기를 돌보아주는 사람들에게 대한 성적 경향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지만, 나중에 **근친강간 금제**에 의해 그들과 닮은 사람들에게 돌려짐을 알았다.
9. 마지막으로 사춘기라는 과도기 동안 정상이 되는데 필요한 성기능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들

기질과 유전

성적 기질의 선천적 다양성, 우리는 이 다양성을 성 흥분의 다양한 근원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우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해 놀라운 예를 하나 들자면 히스테리, 강박신경증의 심각한 사례들 중 절반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그들의 아버지가 결혼 전 매독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었다. 비록 매독 환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손이 예외 없이 신경증적 기질이 될 병인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생각이 없더라도 그들에게서 관찰된 일치가 우연은 아니다. 한 집안에서 성도착과 신경증이 같이 생겨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가령

바타유의 집안 내력; 아버지 매독, 맹인 어머니 정신병)

- 1) 성 충동에서 한 가지 특별한 요인, 즉 생식기 부위가 기질적으로 약할 경우 성욕의 다른 구성 요소들 중 더 강한 것들이 성도착으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 2) 억압; 기질적으로 지나치게 강한 구성 요소들 가운데 어떤 것이 발달 과정에서 억압을 받으면 다른 결과가 생긴다. 이리 되면 관련된 흥분들은 심리적 방해로 받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증상으로 표현될 방법을 찾을 때까지 다른 통로들로 방향을 돌린다. 젊어서 창녀가 늙어서 수녀가 된다. 성도착이 신경증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성도착과 신경증이 한 집안의 다른 구성원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신경증이 성도착의 음화라는 견해와 일치한다.
- 3) 승화; 성욕에서 생겨나는 지나치게 강한 흥분이 배출구를 찾아 다른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줌. 여기서 우리는 **예술적 행위의 기원**들 가운데 한 가지를 알 수 있다. 승화의 아류는 반동형성에 의한 **억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잠복기에 시작되고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기질적 요인과 우발적 요인 사이의 관계는 협력하며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기질과 아동기의 우발적 경험들은 소인과 이후 겪게 될 외상성 경험들이 이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성적 조숙

이 요인은 잠복기를 중단시키거나 단축시킴으로써, 도착적 성질을 떨 수밖에 없는 성적 조짐들을 야기함으로써, 장애의 원인이 된다. 성적 조숙은 종종 조숙한 지적 발달과 병행하는데, 이 경우에는 성적 조숙의 영향만이 나타나는 경우처럼 그렇게 병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양한 충동들이 활동하는 순서는 계통 발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구성 요소들이 합쳐지는 시간 순서에서 차이가 생기면 예외 없이 다른 결과가 생겨난다. 그러나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충동들은 종종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 난폭한 경향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성격을 지배하리라는 두려움에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

유아기 받은 느낌의 고착

신경증 발병 원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심리적 요인, 즉 정신생활에서 최근에 받은 느낌들보다 기억 흔적을 중시하는 경향에 있다. 이 요인은 분명히 지적인 교육에 의존하며 개인적 문화 수준의 정도에 따라 증가한다. 야만인들은 대조적으로 순간 밖에 모르는 불운한 아이들이라고 기술되었다.

지금껏 열거한 요인들에 의해 마련된 근거는 유아기 성욕의 자극이 우발적으로 경험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또 유아 성욕의 자극(무엇보다 유혹)은 심리적 요인들의 도움을 받아 영구적 질환으로 고착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든다. 정상적 성 생활에서 일탈하는 모습 가운데 상당 부분은 맨 처음부터 유아기에 받은 느낌들에 의해 확립된다.

보충

고착fixation

주체의 성 조직화에서 원초적 국면의 기능으로서 충동이 그 이상적 대상과 맺는 특정한 연결

방식을 의미.

- 1) 경제적 수준: 리비도의 양의 일반적 순환에서 퇴각한다는 특징
- 2) 동력학적 수준: 충동의 운동성의 부재라는 특징
- 3) 지형학적 수준: 그 연결이 무의식 속에 각인된다는 특징

프로이트의 작업에서 고착은 이론적으로 네 가지 다른 개념들과 관계가 있다. 외상성, 퇴행, 억압 그리고 기질. 이러한 것들이 프로이트의 고착 개념 세공의 연속적 단계들을 형성한다. 고착 개념은 먼저 나중에 다시 나타나는 하나의 문맥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히스테리 연구』 시기에 방어의 정신신경증에 대한 것과 관계가 있다. 외상 신경증은 그 뿌리에 있는 외상적 사건의 순간에 고착이라는 분명한 암시를 준다. 외상에 대한 고착은 신경증과 환자가 그 외상적 사건에 담긴 정서를 통제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고착의 첫 번째 판본은 경제적 차원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다음으로 『세 편의 에세이』에서 우리는 신체의 일부에 지체하는 경향. 앞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은 또한 쉽게 이러한 초기 단계들 중 하나로 되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퇴행이라고 기술한다.

억압repression

억압은 자아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의식 표상들(사고, 이미지, 기억들)을 주체가 내쫓고 거리를 두는 작용이다. 프로이트에게 억압은 본능에 대한 특권화 된 방어 작용이다. 무의식 발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억압 개념은 프로이트 모든 이론에 따라 다닌다. 그것은 정신분석 구조 전체가 의지하는 주춧돌이다. 억압은 갈등을 처리하고 본능의 요구들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는 정신이 동원하는 방어들 중 하나다.

억제suppression

억제는 억압과 다르다. 억제는 특별히 정서를 목표로 한 방어 기제다. 이는 무의식으로 재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의식으로부터 그 정서를 제거하는 것이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억제는 의식에서 불편한 심적 내용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도로 하는 의식의 메커니즘이다. 억압은 무의식적이고, 그 영향 아래서 억압된 내용은 무의식적인 것으로 남는다. 억압은 본질적으로 충동의 “표상적 대표자”들과 관계가 있다. 억압되는 것은 표상이지 정서가 아니다. 정서의 억제는 의식으로부터 정서를 없애는 억제의 특수한 방식으로 나타난다.